

사랑·이별...애절한 감성에 물들다



광주오페라단이 지난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3색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펼쳤다. '피가로의 결혼' 출연진의 모습. <광주오페라단 제공>

"너는 곧 떠나지, 자아도취에 빠진 아도니스여... 사랑에 빠진 귀여운 나비여"('더 이상 날지 못하리' 중에서)
객석 뒤편에 앉아 바리톤의 목소리에 심취한 관객들을 바라본다. 이날 공연이 오페라 세 편의 하이라이트 영두 곡을 만나는 '갈라 콘서트'였기 때문인지, 관객들은 편안한 모습으로 공연에 몰입하는 듯하다.

지난 30일 저녁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 광주오페라단(예술감독 김기준) 창단 42주년 '광주오페라단의 3색 오페라 갈라 콘서트' 공연장. 현장은 오페라 음악의 거장 모차르트, 푸치니, 베르디의 오페라곡 하이라이트 즐기려는 '클래식 입문자'부터 '클래식 애호가'까지 다양한 관객들로 북적였다.

연주는 클랑 심포니 오케스트라, 총감독은 김기준이 맡았다.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뒤 광주예고, 호신대 등에 출강 중인 김병무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주목받았다. 공연의 막을 연 '피가로의 결혼' 중 '다섯자, 열자'는 사랑에 빠진 남녀의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결혼을 앞둔 수잔나와 피가로는 신혼 방에 들어가 가구를 어디에 둘지 고민하는 노래로 소프라노 이지현·바리톤 박성훈이 각각 수잔나와 피가로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천(베일)을 쥐고 가벼운 연기를 곁들여 노래했다. 귀족들의 악습을 풍자하는 '치정 멜로극'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 오페라 넘버만큼은 부드러운 분위기와 위트도 객석을 사로잡았다.

리뷰 - 3색 오페라 갈라콘서트

광주오페라단 창단 42주년 공연
모차르트·푸치니·베르디 12곡
해설 곁들여 입문자도 쉽게 감상
관객들 스토리에 몰입하며 심취

이어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산들바람에 떠우는', '좋은 시절은 어디로 갔나'와 '늦지 않게 오세요' 등이 울려 퍼졌다. '피가로의 결혼'을 처음 접하거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이를 위해 해설을 곁들인 점은 갈라 콘서트다운 구성이었다. 영주가 농노의 딸에 대한 처녀성을 취하는 악습 '초야권'을 모티브로 한 대목이 울려 퍼지자 장중은 일순 엄숙해지기도 했다.

이어지는 푸치니의 오페라곡 '나비 부인'은 공연장 분위기를 일변게 이끈 공연이었다. '오리엔탈리즘의 정수를 담았다'는 평가 등을 받는 이 작품은 일본에 거주했던 미국인 선교사 존 루서 롱이 쓴 동명의 장편소설을 바탕으로 주세페 자코사·루이지 일리카가 대본을 썼다. 이에 앞서 롱의 소설은 피에르 로티의 '국화 부인'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니, 사실 연쇄된 작품들을 나란히 이해해야 '나비 부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것.

그럼에도 공연은 핵심이 되는 넘버 세 편으로 '나비 부인'을 잘 담아냈다. 김선희 소프라노의 화려한 솔로곡 '어느 개인 날'로 시작해 테너 김정규의 '안녕, 꽃이 핀 피난처여',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날 사랑해 주세요' 순서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 전막의 감동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모나드(핵심)가 되는 오페라 넘버들을 적절히 편성해 일본 나가사키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초 초상'의 비극을 고스란히 전했다.

이와 맞물려 광주오페라단은 지난 2020년 오페라 '나비부인' 전막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 공연에서 게이샤 풍 분장과 세트 구성 등에 심혈을 기울였던 모습에 비해, 이번 갈라 콘서트는 규모를 줄이면서 소리의 전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광주오페라단은 오는 8월 말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나비부인' 전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미는 '춘희'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에 삽입됐던 네 개의 넘버들이 장식했다. 비장미가 도드라진 이 작품은 '파리 사교계의 꽃'이라고 불리며 화려한 삶을 살지만, 이면에는 폐병의 고통을 갖고 있던 '비올레타'를 조명한다. 그녀를 보고 젊은 귀족 알프레도가 사랑에 빠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소프라노 박수연은 '아! 그이인가'에서 절절한 감성을, 테너 김백호는 '그녀를 떠나선 내 맘에 행복 없네'를 통해 절박한 사랑을 희원하는 남자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 이 밖에도 '프랑스의 바다와 육지'는 바리톤 김지영이, '파리를 떠나서'는 소프라노 박수연과 테너 김백호가 함께 들려줬다.

이와 맞물려 광주오페라단은 지난 2020년 오페라 '나비부인' 전막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 공연에서 게이샤 풍 분장과 세트 구성 등에 심혈을 기울였던 모습에 비해, 이번 갈라 콘서트는 규모를 줄이면서 소리의 전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광주오페라단은 오는 8월 말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나비부인' 전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미는 '춘희'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에 삽입됐던 네 개의 넘버들이 장식했다. 비장미가 도드라진 이 작품은 '파리 사교계의 꽃'이라고 불리며 화려한 삶을 살지만, 이면에는 폐병의 고통을 갖고 있던 '비올레타'를 조명한다. 그녀를 보고 젊은 귀족 알프레도가 사랑에 빠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소프라노 박수연은 '아! 그이인가'에서 절절한 감성을, 테너 김백호는 '그녀를 떠나선 내 맘에 행복 없네'를 통해 절박한 사랑을 희원하는 남자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 이 밖에도 '프랑스의 바다와 육지'는 바리톤 김지영이, '파리를 떠나서'는 소프라노 박수연과 테너 김백호가 함께 들려줬다.

이와 맞물려 광주오페라단은 지난 2020년 오페라 '나비부인' 전막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 공연에서 게이샤 풍 분장과 세트 구성 등에 심혈을 기울였던 모습에 비해, 이번 갈라 콘서트는 규모를 줄이면서 소리의 전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광주오페라단은 오는 8월 말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나비부인' 전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인에게 건네는 김창환의 위로

가수 김창환, 에세이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발간

"저는 거의 매일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라디오 오프닝 멘트를 읽고 나면 원고 뒷면에 그리지요. 제법 그럴듯한 원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찌그러진 동그라미입니다. 그림 중이도 아깝고 하니 몇 번 더 그리고 다른 이면지에 또 그려요. 정말 수도 없이 그리는데 단 한 번도 흠족한 동그라미가 그려진 적이 없습니다."

가수 김창환은 매일 아침 동그라미를 그리지만 그 가운데 완벽한 동그라미는 없다. 동그라미는 그림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일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김창환이 말하는 동그라미는 하루하루의 삶을 상징한다.

1977년 록 밴드 '산울림'으로 데뷔 후 1978년부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가수 김창환이 에세이집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웅진 지식하우스)를 펴냈다.

이번 책은 23년을 함께한 SBS 파워FM '아름다운 아침 김창환입니다'에서 들려준 글들을 모았다. 저자에 따르면 "두서없이 흐트러놓은 시간이 남긴 자국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김창환은 수도 없이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완벽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배우는 게 많다.

"우선은 완벽에 관한 환상과 실재가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재수대기하듯 동그라미를 그려볼 거예요. 또 찌그러져 있겠지



요. 저의 하루를 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할 것도 없지요."

여러 편의 짧은 글은 파스한 온기를 담고 있다. 나지막이 속삭이듯 건네는 말은 거창한 담론이나 어떤 시사적인 내용보다는 사소하면서도 잊기 쉬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상에서 작은 희망과 위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는 "너무 매일매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동그라미를 네모라고 하겠습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다 찌그러진 동그라미들입니다. 우리의 일상도"라고 말한다.

가수 이적은 추천의 말에서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출연히 나타나는 푸근한 아저씨가 짐짓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속 깊은 위로"라고 평한다. 한편 김창환은 대표곡으로 '아니 벌써',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창문 너무 어렵듯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청춘' 등이 있다. 또한 에세이집 '안녕, 나의 모든 하루', 소설집 '사일런트 머신, 길자', 동시집 '무지개가 편 방이붕방방', 그림책 '개구쟁이'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른한 오후 고품격 재즈로 충전

'재즈밴드 신현필 켈릿 초청 공연' 오늘 목포대 도림캠퍼스 창조관

누리꾼 사이에서 'GOAT'라는 인터넷 밈(Meme)이 유행이다. 염소가 아닌 '역대 최고(Greatest Of All Time)'의 준말 'GOAT'는 스포츠,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이나 작품을 칭찬하는 용어로 쓰인다.

'재즈밴드 신현필 켈릿 초청 공연-Greatest Of All Time'이 5월 2일(오후 5시) 펼쳐진다. 장소는 목포대 도림캠퍼스 창조관 연주홀.

미국의 재즈 테너 색소폰니스트 헝크 모블리 곡 'This I Dig of You'를 비롯해 마이클 데이비스의 '안녕, 블랙버드', 카를로스 조비의 '지자파나두'가 울려 퍼진다. 이어 '브릿지 존스' OST이자 산뜻한 멜로디로 유명한 '미스 존스를 만난 적 있나요', 듀크 엘링턴 곡 '카라반'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 밖에도 'In Walked Bud' (텔레비전 시리즈 'Comin' Home Baby' (블루스)도 레퍼토리에 있다.

재즈 색소폰니스트 신현필을 필두로 한 '신현필 켈릿'은 피아니스트 이한일, 베이스리스트 최진배, 드러머 주화준이 함께하는 4인조 그룹이다. 신현필은 '국한직업', '유미의 세포들' 등 영화·드라마 OST 작업을 통해 이름을 알려 왔다.

목포대 음악공연기획과 신지수 학과장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고품격 재즈 연주를 즐기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초대). /최류빈 기자 rubi@



'신현필 켈릿'. <국립목포대 제공>

학교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멘토링

광주서구문화원, 10월까지 '탄탄대로 공개수업'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수업이 진행된다. 광주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탄탄대로 공개수업'이 그것. 이번 공개수업은 20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됐으며 예술강사의 수업기법과 학생요청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올해는 신규 강사 3명을 비롯해 신설학교 출강강사 2명, 유형 변경 강사 6명, 지역이동 강사 8명, 민원접수 강사 3명 등으로 진행된다. 공개수업은 22회에 걸쳐 운영되며 분야별 전문가 2명, 서구문화원 사업담당 2명이 참여하는 멘토링 시간도 있다. 현장 멘토링

을 계기로 학교 수업의 질 제고와 문제점 개선, 현장 예술교육 수업의 향상은 물론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 원장은 "올해 진행되는 탄탄대로 공개수업은 일차적으로 예술강사의 수업 역량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학교예술교육의 효율성을 견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예술강사와 운영학교가 상호 협력을 통해 원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을 계기로 학교 수업의 질 제고와 문제점 개선, 현장 예술교육 수업의 향상은 물론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 원장은 "올해 진행되는 탄탄대로 공개수업은 일차적으로 예술강사의 수업 역량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학교예술교육의 효율성을 견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예술강사와 운영학교가 상호 협력을 통해 원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